

플라톤 이상국가에서의 예술가의 지위

김 영 정
(서울대 철학과 교수)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형이상학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로 극작가와 서사시인을 이상국가로부터 추방했지만, 그 반대로 『법률편』에서는 교육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하려는 오락적 목적으로 그들을 이상국가로 다시금 받아들였다. 극작가와 시인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다음의 문단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만일 자신의 뛰어난 재주로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모든 것들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도시로 와서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공연을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가 성스럽고 놀라우며 달콤한 사람임에 정중하게 예를 표해야 하지만, 그에게 우리의 도시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머리에 몰약을 붓고 화관을 씌운 후, 다른 도시로 보내 버릴 것이다.”¹⁾

“(시인이나 비극 작가인) 그들 중 몇몇이 우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나라로 들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작품을 함께 가지고 가도 될까요?’ ...’ 영감으로 충만한 이 천재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 내 생각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우리의 나라 전체는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삶을 모방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장르를 짓는 당신들과 같은 시인입니다. ...’ 그러니 우리가 분별없이 당신들을 시장바닥의 무대에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떠나가지 마십시오.”²⁾

1) 『국가편』, 398a.

2) 『법률편』, 817.

예술가에 대한 플라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적어도 그의 예술 이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의 예술 이론의 어떤 요소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 변화가 그의 예술 이론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예술 이론에 있어서 논리적인 모순을 표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론적 성숙을 반영하는 것인가? 보다 명료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국가편』과 『법률편』에서의 플라톤의 예술 이론을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국가편』에서의 플라톤의 예술 이론

『국가편』 10부에서 플라톤은 자신의 형이상학적 근거 위에서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예술은 모방이며, 이러한 모방성 때문에 예술은 실재와는 거리가 멀고, 한낱 이미지(모상)에 불과하다. 모방 혹은 복제라는 개념은 대상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한 플라톤의 학설에 기초하고 있다. 대상의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로, 완전히 실재하며 완전히 이해 가능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형상과, 두 번째로, 형상으로부터 복제된 지각 가능한 대상, 그리고 세 번째로 지각 가능한 대상을 복제한 예술 작품 등이다. 침대의 형상은 첫 번째 단계의 대상이며, 목수가 만들어낸 지각 가능한 침대는 두 번째 단계의 대상이며, 화가가 그린 침대의 그림은 세 번째 단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은 모방의 모방이며, 따라서 실재보다 두 등급이나 낮다. 그리고 진리는 전적으로 실재하는 형상 속에서만 적절하게 생각될 수 있으므로, 예술 작품은 진리에서 두 단계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 외양을 모방하는 화가와 시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복제하지도 않는다. 침대를 그리는 화가는 어떠한 관점에서만 감각에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그린다.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이 신이나 영웅, 전쟁 등을 묘사한다. 가령 『일리아드』 2권에서 호메로스는 제우

스가 아가멤논의 꿈속에 나타나 거짓말을 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 아가멤논의 꿈에서 제우스는 승리를 거짓되이 약속하면서 트로이를 즉시 공격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플라톤에 따르면, 신성에 속하는 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신은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호메로스는 신을 잘못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방적인 예술은 진리와는 동떨어져 있다.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모방적 예술은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며, 이 때문에 예술은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³⁾고 언급하고 또 “그들(시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실재로부터 세 단계나 벗어나 있으며, 진리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실재가 아니라 이미지(모상)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⁴⁾고 말한다. 위의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플라톤이 미적인 경험을 상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적 경험의 대상은 이미지(모상)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이미지란 모방하고 꿈꾸는 활동에 의해 파악되고 창조된 한낱 겉모양에 불과한 것이다. 예술은 진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므로, 예술은 이성이 사라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감정이 복합된 것이므로, 이성이 사라진 지점은 감정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예술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한다. 따라서 예술의 핵심 개념인 상상 또한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한다. 모방으로서의 예술은 이성적인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술의 상상적인 활동은 지식이나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상상은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절제하고 통제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편』에서 보여지는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는, 예술은 철학적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한낱 임의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따라서 진리와는 동떨어진 무절제한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3) 『국가편』, 598b-c.

4) 『국가편』, 598e-599a.

상상이라는 개념에 덧붙여, 쾌락(pleasure)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의 예술 이론의 또다른 핵심 개념이다. 예술은 이성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술의 이러한 감정성(emotionality)은 예술의 상상적인 본성으로부터 연역된 것이며, 쾌락은 예술의 주된 감정적 효과이다.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쾌락과 이성은 상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쾌락과 이성은 서로에 대해 상호 파괴적이고, 따라서 쾌락은 이성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이상국가에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문단들이 쾌락과 이성의 양립 불가능성을 옹호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서정시에서든 서사시에서든 달콤한 쾌락의 뮤즈를 받아들인다면, 언제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법과 이성적인 원리 대신에 쾌락과 고통이 여러분의 도시에서 군주로 군림할 것이다.”⁵⁾

“그래서 우리는 잘 통치되고 있는 도시에 그(화가나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이 부분(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성적인 부분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⁶⁾

“(시가 쾌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어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나의 친구여, 우리는 사랑에 빠졌으나 자신의 감정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들 자신을 강요할 것이다.”⁷⁾

위의 논의들은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즉, 감정의 행사인 예술은 진리에서 동떨어진 무절제한 상상력의 산물이며,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파괴하는 한낱 쾌락만을 제공

5) 『국가편』, 607a.

6) 『국가편』, 605b.

7) 『국가편』, 607e.

할 뿐이다. 따라서 플라톤으로서는 무절제한 상상력을 통해 영혼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모방적 예술가들을 이상국가에서 추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 그러므로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미적인 경험을 심리적인 무정부상태이며, 무질서의 탐닉으로 보고 있다.

플라톤이 모방적 예술가들을 자신의 이상국가에서 추방하고 있지만, 『국가편』에서 자신의 이상국가 속으로 다시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시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 즐거운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와 인간의 삶에 유용하기도 하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어떠한 논변이라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플라톤은 “서정시나 또 다른 운율을 옹호하는 일이 끝난 후에는 추방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⁸⁾라고 말한다. 그것에 덧붙여 그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일률적으로 이상국가에서 추방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예술의 경우에는 이상국가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호메로스가 매우 시적이며 그가 비극작가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신에 대한 찬송과 선한 사람들에게 대한 칭송만이 우리의 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시임을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⁹⁾ 감정과 이성이 상호 파괴적이라는 자신의 가정에 따라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술가들의 이상국가에로의 귀향을 『법률편』에서 환영하게 될 가능성을 이미 『국가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법률편』에서의 플라톤의 예술 이론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모방으로 설명했으며, 이러한 이중 모방(double imitation) 이론에 의거해 우리는 예술이 감정의 행사

8) 『국가편』, 507d.

9) 『국가편』, 507a.

이며, 상상과 쾌락이 예술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모방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요 구조는 『법률편』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과 쾌락의 가치는 변화되었다. 그것은 상상적 혼돈에서 상상적 상징(symbolism)으로, 해로운 쾌락에서 유익한 쾌락으로의 변화이다. 『국가편』에서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성적인 부분을 파괴까지도 할 수 있는 감정에의 자극을 제거하는 일은 덕이었다. 그러나 『법률편』에서는 이성과 감정의 일반적인 화합이 덕이 되었다.

『법률편』 2권에서 플라톤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과 예술이 지닌 감정성을 고찰한다. “나는 어린아이가 유아기에 가장 처음 느끼는 감각이 바로 쾌락과 고통이며 또 이것이 덕과 악이 처음으로 영혼으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어린아이가 쾌락과 애정, 고통과 증오 등의 느낌들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전에 그러한 느낌들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 형성됨으로써 어린아이가 덕을 처음으로 획득하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한다.”¹⁰⁾ 플라톤은 쾌락의 분석으로부터 예술에 대한 자신의 탐구를 시작한다.

플라톤은 쾌락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즉, 적절한(이로운) 쾌락과 부적절한(해로운) 쾌락, 그리고 단순한(무해한) 쾌락 등이 그것이다. 적절한 쾌락은, 이성에 의해 성취되며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진리와 도덕에 부합하는 쾌락이다. 단순한 쾌락은 진리나 도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성인들의 휴식이나 여가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쾌락이다. 또한 부적절한 쾌락은 진리와 도덕에 대립되며 국가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쾌락이다. 쾌락 전체가 이성에 대립한다는 『국가편』에서의 가정과는 대조적으로, 『법률편』에서는 쾌락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쾌락을 세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쾌락이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 혹은 단순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술이 이롭거나 해롭거나 혹은 무해한 예술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 플라톤은 그러한 결정이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도덕

10) 『법률편』, 653.

수준을 갖춘 나이든 사람들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은 어떤 예술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성과 감정 사이의 화합은 높은 교육과 도덕 수준을 갖춘 나이든 사람들의 족적을 따름으로써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일한 것에서 쾌락과 고통을 찾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예술이든 가령 자연적 음률들이 일단 나이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면, 그것은 나이든 사람들과의 상담을 다시금 새로이 통하지 않고서는 변경될 수 없다. 교육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이로운) 쾌락을 인정하고, 여가생활의 목적을 위해 단순한(무해한) 쾌락을 인정하지만, 부적절한(해로운) 쾌락은 제한하는 플라톤의 견해는 다음의 문단들에 나타나 있다.

“만일 그것이 그들이 노래부르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무해한 쾌락을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나이 어린 세대에게는 덕성 있는 관습을 적절한 열성을 가지고 수용하도록 자극할 것이다.”¹¹⁾
 “어린이의 영혼은 법과 나이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방식으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버릇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¹²⁾

쾌락의 세 가지 구분 위에서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에 예술가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적절하고 단순한 쾌락은 예술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도시와 인간의 삶에 유용함까지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부적절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을 주장한다. 『법률편』 7권에서 플라톤은 예술가들이 이상국가로 되돌아오게 됨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매혹적인 뮤즈의 아들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연극을 엄정하게 검열할 것이며, 우리가 인정한 것만을 장려할

11) 『법률편』, 670d.

12) 『법률편』, 659.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금지할 것이다.”¹³⁾

쾌락에 대한 구분에 덧붙여 플라톤은 『법률편』 2권에서 예술의 상징적인 특성을 옹호하기 위해 정확성(accurac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상징(symbolism)은 그 본성상 상상적 형식 속에 가려져 있는 진리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가려져 있는 진리는 상징에 부착된 감정적 분위기라는 형식으로 마음에 제시된다. 『법률편』에서 플라톤은 상상(imagination)을 진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적 진리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는 상징적 상상을 통해 대상이 가진 비율과 특성을, 즉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모방하고 성공적으로 재생산해내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음악은 아름다움이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모방한 종류의 음악이다. 플라톤의 모방 개념은 단지 사진과 같은 모방이 아니라 상징적인 재생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플라톤은 음악이 사진처럼 모방할 자연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모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정확성 개념은 단순히 사진적인 정확성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확성 개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방에 있어서의 정확성이란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의 형태를 모방하는 정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형식을 통해 상징적인 진리를 모방하는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훌륭한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라는 대상의 진리를 이미지를 통해 정확하게 상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하고 참된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라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상징적인 모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술을 정확한 상징적인 모방으로 보는 플라톤의 견해는 다음의 문단들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모방으로서의 예술)에서의 진리는 원래 대상의 비율과 성질을 정확하게 재현하는데 달려있지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쾌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¹⁴⁾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13) 『법률편』, 817.

14) 『법률편』, 667.

음악은 아름다움이라는 대상을 닮은 종류의 것이다.”¹⁵⁾ “우리가 말했듯이, 진리는 대상의 비율과 특성을 모방하고 성공적으로 재생산해내는 데 놓여있는 것이다.”¹⁶⁾

위의 문단들에서 나오는 비율이라는 개념은 단지 회화에서의 크기의 비율뿐만 아니라 음표를 결합시키는 비율도 함축하며, 예술 작품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여타의 특정한 비율들을 다 함축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율 개념은 예술에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비율과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특성(성질)이라는 개념도 또한 예술 작품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특정한 특성을 다 함축한다. 특성이 지니는 함축은 상상적 진리(imaginative truth)라고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편』에서 묘사된 예술은 감정 속에 가려진 철학적 진리를 파악해 내는 상상적 상징인 것이다.

쾌락과 상상에 관한 위의 논의들로부터 우리는 플라톤이 이성적인 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국가로 예술가들이 되돌아옴을 환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편』에서의 가정과는 반대로, 『법률편』에서 보여진 감정은 이성과 진리에 대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다. “덕은 이성과 감정의 일반적인 화합(concord)이다.”¹⁷⁾

3. 플라톤의 예술 이론에 대한 평가

예술을 모방으로 보는 플라톤의 예술 이론의 주요 구조는 『국가편』과 『법률편』 모두에서 유지되고 있다. 모방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상상과 쾌락에 호소한다. 그러나 상상과 쾌락에 대한 플라톤의 평가는 변화를 겪는다. 『국가편』에서의 예술은 무질제한 상상력과

15) 『법률편』, 668.

16) 『법률편』, 668.

17) 『법률편』, 653.

유해한 감정에 호소하는 데 반하여, 『법률편』에서의 예술은 상징적인 상상과 이롭고 무해한 쾌락에 호소한다. 상상과 쾌락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따라 플라톤은 『국가편』에서 자신의 이상국가로부터 예술가들을 추방했으나, 『법률편』에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에 대한 플라톤의 태도 변화는 예술을 모방으로 보는 그 자신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비밀관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단지 상상과 쾌락에 대한 그의 평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상과 쾌락에 대한 그의 평가의 변화는 논리적 모순의 견지에서보다는 인간의 성숙이라는 견지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나이가 들어가면서 플라톤은 인간의 감정이 지닌 유덕한 측면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에 대한 플라톤의 태도 변화는 이론적인 비밀관성보다는 인간의 성숙에 기인하며, 또 그의 예술 이론 속의 논리적 모순보다는 이론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미적인 숙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관심성(disinterested character)을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미적인 숙고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보다는 예술의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은 플라톤이 미적인 감수성보다는 도덕적인 탁월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예술 철학”¹⁸⁾이라는 논문에서 콜링우드는 상상적 상징으로서의 플라톤의 예술 이론이 『국가편』 10권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플라톤은 『국가편』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박한 모방으로서의 예술 이론을 좀더 정교화된 상상적 상징으로서의 예술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콜링우드의 주장은 무리하게 끼워맞춘 해석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국가편』 10권에서 이성과 감정이 양립 불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Mind*, April, 1925.